

주제회의  
여성

부산지역 여성문화예술인의 현황 사례발표: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이하 연대)는 2016년 트위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연대하는 여성 예술인들이 부산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모이게 되었다. 이후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인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반성 폭력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연대의 반성폭력 운동은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사건 연대 활동, 두 번째는 인식개선을 위한 집담회와 캠페인, 세 번째는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제안과 함께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설립 운동, 네 번째는 성평등한 창작환경 구축 활동이다.

그 결과 부산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의 운영을 이끌어내고 재단의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부산예술지원사업에 성평등 관점의 제도 개선과 다수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부산의 경우 반성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 예술인들은 대부분 예비예술인이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예술인들이었다. 그러한 예술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역이라는 좁고 친밀한 예술 공동체 안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반성 폭력 운동을 하거나 페미니즘 관점의 기획과 창작을 할 경우, 주변 동료들의 차별적 대우와 평가로부터 위축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1년 문화예술X성평등네트워크 in 제주에서 주최한 지역별 〈성평등 아카이브: 부산 라운드 테이블〉에 모인 15명 내외의 2,30대 여성 기획자, 창작자들은 예술 현장에서 겪는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와 같이 말했다. 여성 서사 중심의 창작물이나 문화기획을 시도할 때 주변 동료, 선배들로부터 “사적 서사에 갇히지 말고, 거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을 하라”, “페미니즘적인 기획이 왜 필요한지 증명을 해보라”는 차별적 시선과 여성 서사의 작품과 기획을 가치 절하하는 평가를 오랜 시간 겪어 왔다고 한다.

더불어 여성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예술 강연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겪기도 했다고 공유했다. 자신의 의사를 말했을 때 차별과 배제가 돌아오는 예술 환경이야말로 안전하지 못하며,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위태롭게 만든다. 법과 제도가 가닿지 못하는 예술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개입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예술 현장 분위기로 인해서 부산은 반성 폭력 운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 서사 작품을 창작하고 기획하는 방향

등 두 가지 축으로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극계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 서사 중심의 연극 무대를 만들고 여성 공연 기획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나아가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를 꾸준히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해당 극단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연극을 지향하는 여러 여성 예술인들에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극계 뿐만 아니라 미술, 영화계를 중심으로 여성 예술인들의 네트워크와 작품의 기회를 넓혀가는 취지의 작은 그룹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여성 서사의 창작물을 만들고 기획하는 것과 성평등한 창작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일부의 예술인이 아닌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 성평등한 창작환경을 만드는 것이 예술가로서 권리를 지키고 세우는 일이라는 연결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술 현장에서 더 많은 ‘연결’이 이어지길 바란다.